

4) 전라좌수영 공방전

전라좌수영(현 여수)은 동학교인이나 농민군의 활동이 두드러진 곳은 아니었다. 당시 전라좌수사 이봉호(李鳳鎬)는 농민군에게 호의적이었던 것 같으나, 곧바로 체임되고 후임으로 김철규(金徹圭)가 음력 7월 초에 부임하였다. 그는 부임하는 도중 농민군에게 봉변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전봉준의 호의로 마침내 여수에 도착할 수 있었다.¹⁾

그런데 좌수사 김철규는 좌수영을 본영으로 삼아 농민군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였다. 다음의 기록이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

방금 전라좌수사 김철규의 장계를 보니 비적들이 사납게 설치므로 쳐 없애려고 하지만 수영에 저축한 곡식이 없어 군량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부근 고을에 있는 어떤 쌀 중에서 1,000섬만 떼달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수영은 호남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방어를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평양의 그전 둔전 곡식 중에서 적당히 가져다 씌으로써 군량을 보충한 후에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승인하였다.(『효종실록』 권32, 고종 31년 10월 28일조)

좌수사 김철규는 음력 10월 말 좌수영을 지키기 위해 군량을 요청하였고, 정부에서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좌수영은 군대와 무기를 보강하고 군수품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호도회소는 동으로는 하동에서 밀렸으며, 남에서는 좌수영이 버티고 있었다. 더욱이 전봉준과 김개남의 농민군이 공주와 청주에서 각각 패하였으며, 선봉장 이규태가 이끄는 주력부대 약 800명을 비롯한 순무영(巡撫營)·장위영(壯衛營)·통위영(統衛營) 등 3,000여 명의 관군이 파죽지세로 전라도를 향해 남진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왔다.²⁾

그리고 주한일본공사에 새로이 임명된 정상형(井上馨)도 무력 진압을 서둘렀다. 그는 일본군을 3개 부대로 나누어 전라도로 출동하게 하였다. 즉, 1개 부대는 충청도 서해안지대를 우회하여 전라도 서남해안을 거쳐 여수로 향하게 하였으며, 다른 1개 부대는 서울에서 충청도 중앙부를 지나 전라도 남단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1개 부대는 서울에서 강원도·충청도를 거쳐 전라도로 남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일본군 3개 부대의 최종 목적지는 모두 전라도였는데, 이들은 농민군을 전라도의 서남부, 즉 강진·해남 방면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작전으로 일관하였다.³⁾

이처럼 사방에서 관군과 일본군이 농민군에 대한 포위망을 죄이자, 영호대접주 김인배는 좌수영을 점령하기로 결정하였다. 좌수영은 바다 쪽으로 움푹 들어간 국자모양으로 생긴 고립된 지형이었다. 이에 김인배는 우선 쌀장수의 출입을 금지하고 바다를 봉쇄하여 뱃길을 끊음으로써 좌수영의 보급로를 차단하였다. 그는 여수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좌수영을 확보하여 지구전을 벌이거나, 여의치 않으면 바다를 통해 남해의 수많은 섬으로 들어갈 작정이었다.⁴⁾

음력 11월 10일(양 12. 6.) 영호도회소의 대접주 김인배는 수만 명을 이끌고 좌수영으로 향하였다.⁵⁾ 순천을 출발한 농민군은 여천의 덕양역에서 좌수영의 정찰병을 쉽게 물리치는 등

1) 황현 저·김종익 역, 『헌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5, 203·266쪽.

2) 구양근, 『합오농민전쟁원인론』, 아세아문화사, 1993, 449~450쪽.

3)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6, 1991, 60쪽.

4) 이이화, 『탈굴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한겨레신문사, 1994, 102쪽.

5) 황현 저·김종익 역, 『헌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5, 282쪽.

순조롭게 좌수영을 향하여 전진하였다. 이들은 곧바로 여수에 도착하여 종고산(鍾鼓山)을 점령하고서 좌수영을 위협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추위가 몰아닥쳤다. 종고산 위에 주둔한 농민군들은 살을 에는 듯한 바닷바람을 견딜 수 없었다. 결국 영호도회소의 농민군들은 일단 순천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음력 11월 16일, 김인배는 낙안 출신의 이수희(李守喜)를 중군장으로 삼아 다시 좌수영 공격에 나섰다. 또한 여천군(현 여천시) 쌍봉면 출신의 박군하(朴君河)·윤경삼(尹京三)과 돌산 출신의 황종래(黃鍾來) 등이 좌수영 공격을 선도하였다. 농민군은 공격에 앞서 좌수영에 고시문을 보내어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집안이 망할 일이니 우리 서로 화합하고 힘을 합하여 일본군을 막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성 안의 반응은 냉담하였으며, 오히려 좌수영 주변의 군사적 요충지에 주둔한 군대와 포수를 동원하여 성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다. 이에 농민군은 야간공격을 단행하였으나, 끝내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덕양역으로 물러났다. 당시 농민군은 60여 명의 사상자를 남기고 퇴각하였는데, 좌수영의 군인들이 죽은 농민군 시체의 목을 잘라 성문에 걸고, 그 몸둥이는 바다에 던져버렸다.⁶⁾

영호도회소의 농민군들이 약 3일 동안 덕양역에서 쉬고 있자, 이번에는 좌수영군이 선제공격에 나섰다. 음력 11월 20일 밤에 좌수영군은 덕양역에 주둔한 농민군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은 충분한 휴식과 관군의 기습에 대비하고 있었으므로 덕양역 주위의 산등성이를 배정삼아 곧바로 응전하였다. 좌수영의 영장(營將) 이주회(李周會)가 이끈 좌수영군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좌수영군은 30리를 행군한 데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추위까지 겹쳐 여러 모로 불리하였다. 결국, 좌수영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오던 길을 되짚어 달아났다.

사기가 오른 농민군은 관군을 끝까지 추격하여 상당한 전과를 거두었다. 농민군이 좌수영에 도달하였을 때는 날이 이미 저물고 있어서 총을 쏘아도 잘 맞지 않았다. 농민군은 성 주변에 있는 민가에 불을 놓았다. 화공작전을 펼쳐서 불기운이 성 안까지 번지면 항복하리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벽이 높아 불길은 성 안으로 옮겨붙지 않고, 성 주변의 민가 500여 채만 태워버렸다.⁷⁾

영호도회소의 농민군은 좌수영이 마주보이는 곳에 진을 치고서 정예병을 서문 밖에 주둔시키는 한편, 부대를 나누어 종고산을 점거하고서 지구전을 펼쳤다.⁸⁾ 이에 좌수사 김철규는 음력 11월 25일에 여수 앞바다에 정박 중인 일본 해군 축파호(筑波號) 함장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다음날 축파호 함장 흑강대도(黑岡帶刀)는 육전대(陸戰隊) 100여 명을 상륙케 해 좌수영 군대와 합류하여 곧바로 농민군 진압에 나섰다. 일본군은 육전대를 200명으로 증원하였으나, 그것도 모자라 금오도(金鰲島)와 나팔도(喇叭島)의 일본 어민까지 강제로 끌어들여 좌수영 공방전에 가담케 했다.

종고산과 서문에 주둔한 농민군도 목숨을 걸고 좌수영을 공격하였다. 하지만, 전력을 보강한 일본군과 좌수영군 그리고 성 안의 주민들을 당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농민군은 수많은 희생자를 남긴 채 순천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농민군은 1895년 1월까지 여러 차례 좌수영군과 소규모의 전투를 벌였으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없었다. 요컨대, 영호도회소는 대접주 김인배가 직접 나서서 3~4회에 걸쳐 좌수영을 공격하였으나 끝내 점령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6) 구양근, 앞의 책, 469쪽.

7)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1, 1991, 241쪽.

8) 황현 저·김종익 역, 『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5, 285쪽.

영호도회소의 최종목표, 즉 좌수영을 근거지로 삼아 지구전을 펼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남해의 섬으로 들어가 장기항전을 모색하려는 계획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